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1228-0180

光州日報

www.dakajob.com
 "당신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VIP No.1 결혼정보회사 - 막스클럽
 대표이사: 박영민

The Kwangju Ilbo

위기의 全南大

‘등록금 인상-총장실 점거’ 악순환 되풀이
 면학분위기 해쳐 대학 이미지·경쟁력 하락

명분 약한 전남대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 농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전남대 총학생회의 잇따른 총장실 점거는 전남대에 대한 과격 이미지를 덧칠하고 있고, 학생들의 취업이나 대학 평가 등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총학생회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외면하고 중간고사 기간 중 총장실 점거를 강행해 ‘전남대 출신은 과격하다’는 그릇된 이미지를 조성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재학생들도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총장실 점거 농성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올 등록금 인상분 9% 반환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6일째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5월에도 등록금 인상분 반환을 요구하며 40여일 동안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인 적이 있다.

전남대 총동맹회 임원 40여명은 지

난 17일 농성장인 총장실을 방문, “대학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총장실 점거 농성을 풀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학생들을 설득했다.

총동맹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모교와 국가 발전, 민주화를 위한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과 업적에도 모교는 과격하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오랜 세월동안 졸업생이 취업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고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총동맹회는 특히 “지금 사회는 투쟁력이 아닌 대학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학생의 취업을 어렵게 하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총학생회라면 불신임을 받아야 할 주체는 총장이 아니라 총학생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이에 대해 등록금 인상분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선배들의 충고를 외면했다.

총학생회가 총장실 점거 농성의 이유로 든 등록금 문제에 타 국립대의

기성회비 인상률을 감안한다면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남대의 올 기성회비 인상률은 9%로 같은 국립대인 제주대(16.2%), 전북대(13.8%), 경북대(12.34%), 충남대(10%)보다 낮고 부산대와 강원대와는 같은 수준이다. 사립대인 조선대도 올해 등록금을 9% 인상했다.

대학 당국의 문제 해결 능력 부재를 탓하는 소리도 높다. 등록금 인상을 놓고 해마다 총장실 점거 농성이 일어난다면 대학 구성원들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대학 당국의 문제 해결 능력 부재를 탓하는 소리도 높다. 등록금 인상을 놓고 해마다 총장실 점거 농성이 일어난다면 대학 구성원들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총동맹회 관계자는 18일 “총학생회는 하루빨리 점거농성을 풀고 학교 측과 협의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신을 사회대 3학년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총학생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요즘 총학생회의 행동을 보면서 정도가 지나친다는 것을 느낀다. 총학생회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황태기자 hwangtae@



“정책선거 실천합시다”

18일 오후 광주시선관위 주최로 열린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지방선거 후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공약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제총 한나라당 광주시당 위원장, 오병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후보, 진선수 한나라당 광주시당 예비후보, 김재국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예비후보, 박광태 민주당 광주시당 후보, 전수안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영택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예비후보, 안희옥 5·31 지방선거 광주·전남연대 대표, 유태영 민주당 광주 동구구청장 후보, 유종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韓-美 FTA협상서 쌀 제외”

(자유무역협정)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밝혀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은 18일 쌀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쌀이라는 것은 국민정서와 관련된 것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쌀의 경우 다자차원에서 2014년까지 예외로 인정받아 놓았다”면서 “(쌀 제외 방침을 밝힌) 한명숙 총리 지명자의 말씀이나 저나 일치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공공분야도 꼭 지켜야 한다고 대통령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교육부와 관련, “초등학교, 중·고교는 개방대상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초·중·고교를 빼고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면 검토할 수는 있다”고 언급, 대학교 등은 FTA 협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필뉴스

제8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1일 오후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정명호 전남대교수 ‘심장 돌연사 예방법’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제8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 건강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21일 ‘심장 돌연사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로, 돌연사의 원인·사전 예측방법·최신 치료 기법과 생활 속 예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해 줄 것입니다. 강좌의 주요 내용은 오는 25일(화요일)자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심장 돌연사 예방법
- 강 사: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전남대 대학원 박사
 -미국 메이오대학원 연수
 -미국 심장중재술학회·심장병학회·심장학회, 유럽 심장학회 전문의 등 세계 4대 심장학회 전문의 취득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분과장

일 시: 4월 21일(금) 오후 2시
 장 소: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문 의: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8091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혁신도시 성패 교통망에 달렸다”

나주서 심포지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나주에 건설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완공과 광주시와 혁신도시 간 경제전철 건설을 비롯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와 대한지리학회, 전남대학교는 18일 오후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혁신도시의 성공은 완벽한 광역교통망에 있다고 밝히, 도시 개발과 함께 혁신도시 주변의 도로·철도 등 교통 여건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대한지리학회장인 이광복 전남대 교수는 “공동혁신도시의 성공 요소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 교통망 구축이며, 그것도 혁신도시 건설 일정보다 선행돼야 도시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유가 70弗 첫 돌파

WTI 70.29 브렌트유 70.6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유가가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1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7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는 배럴당 64.7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78달러 올라 11일 기록한 최고가 63.63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도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0.51달러 오른 70.29달러를 기록해 종전 사상 최고가인 작년 8월30일의 69.84달러를 뛰어 넘었다. 브렌트유 현물가도 배럴당 1.09달러 오른 70.60달러에 거래돼 70달러 벽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관련기사 11면〉

유가가 최근 초강세를 보이면서 두바이유 현물가는 이날 들어 배럴당 평균 62.42달러, WTI는 68.15달러에 달해 작년 평균인 49.37달러와 56.46달러에 비해 10달러 이상 올랐다. 선물원유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5월 인도분 WTI는 지난주말에 비해 1.08 달러 상승한 배럴당 70.40달러를 나타냈다.

／이종태기자 jilee@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국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접수기간: 4월 25일 ~ 5월 25일까지
 http://www.kwangju.co.kr

우미건설 www.lynn.co.kr

光州日報 창사 54 1952-2006

멀리 보는 집에선 더 큰 행복이 자랍니다

살아갈수록 삶에 행복감이 드는 집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더해가는 집
 멀리 보는 집, '린'!
 당신께 더 큰 만족을 드립니다.

우미 '린'은 미웃 리얼에서 나온 뜻입니다. 좋은 설계, 친환경적 단차구성, 정법시공은 살수록 창이 드는 집, 즉 '멀리보는 집'의 근원입니다.

광주 수완지구 우미 '린' 1250세대 8월 오픈 예정 분양문의: 1588-9707